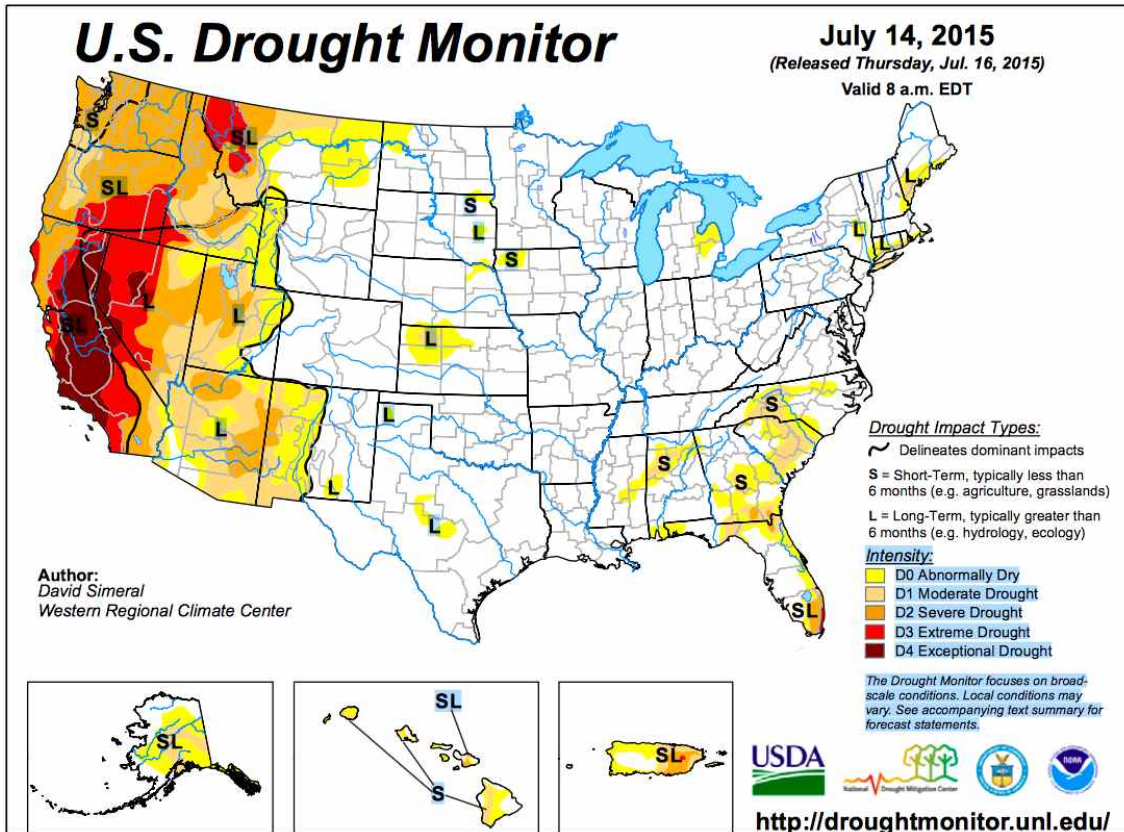


7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9)

□ 미국 기후 현황(7/12~7/18)



강한 햇빛과 높은 습도로 인해서 중부 평원과 서부 옥수수 지대의 여러 지역에서 평년보다 5°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남동부 지역에서도 더운 날이 많았다. 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을 제외한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았고,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허리케인 돌로레스(Dolores)가 소멸한 가운데, 남아있던 비구름으로 인해 남서부 사막 일대에는 강한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침수되기도 했다. 남중부 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중부 평원과 동부 옥수수 지대에서는 강한 비가 내려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중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플로리다에서는 비가 적절히 내렸지만, 켄터키 동부와 테네시에서는 강한 비로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7/13~7/19)

대륙 전역에 걸쳐 평년수준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켄터키와 인디애나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반대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평년수준보다 비가 적게 내려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 일대는 평년보다 3°F 이상 높은 상황이다. 반면, 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주말 동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옥수수

7월 19일 기준 출사기(silking stage)가 끝난 지역의 비율은 약 55%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앞서고 있지만,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등 서부 옥수수 지대에서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출사기에 도달한 재배지 면적 비율이 39%p 이상 증가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7%p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서 각각 86%, 83%가 생육 상황이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했다.

■ 겨울밀

7월 19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7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와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약간 앞선 상황이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레곤의 경우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35%p, 워싱턴에서는 29% 앞섰다. 이와 달리 옥수수 지대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수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각각 35%p, 51%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면화

7월 19일까지 총 재배지의 76%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퀘어링 단계(squaring stage)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7%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뒤쳐진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33%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와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각각 3%p 뒤쳐진 상황이다. 대평원 북부 일부지역과 텍사스의 연안지역에서는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7%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동일한 수준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p 증가한 수준이다.

■ 쌀

7월 19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40%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9%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7%p 앞선 상황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성숙기에 도달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72%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상황이다.



□ 세계 기후 현황(7/12~7/18)

■ 유럽: 서부와 남부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4°C까지 오르기도 했다. 스페인 북부의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8°C까지 올라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40°C까지 올랐다. 이탈리아 북부도 상황이 비슷한데, 낮 최고기온은 35~38°C까지 올랐으며, 30일 이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발칸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어 헝가리와 루마니아 서부 등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에서는 남부와 달리 강한 비가 내려 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을 주었다.

■ 구소련(서부): 남부를 제외한 전역에서 시원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밀 수확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차가운 저기압 경계에 위치해서 비가 내리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다(1~4°C).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북부 등에서는 10~60mm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 생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2~25mm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와 해바라기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지만, 비로 인해 겨울밀 수확작업은 지연되었다.

■ 동아시아: 북부 평원과 Yangtze 계곡 일대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Heilongjiang, Jilin, Liaoning 서부 지역과 내몽고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지난 3주간 강우량은 25mm 미만이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평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화의 경우 생육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6월 1일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북한의 경우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50~1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200mm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한에서도 태풍의 영향으로 25mm부터 많게는 100mm이상의 비가 내렸다. 일본에서는 태풍 낭카로 인한 강한 비바람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아시아 일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이상 오르기도 했다.

■ 호주: 서부의 밀 재배지 일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이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남호주와 빅토리아 북부에서는 5~1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 역시 지난 6월 중순 이후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등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주요 곡창지대에는 땅을 축축이 적실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La Pampa, Cordoba 남부와 Buenos Aires 서부에서는 강우량이 10mm 미만 수준으로 수분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온의 경우 평년 수준을 유지해 낮 최고기온이 20°C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Santiago del Estero 등 북부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영하 4°C~0°C). Chaco 동부 등 북동부 면화 재배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수확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66%보다 11%p 앞선 상황이고, 밀의 경우 수확률이 79%를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브라질: 남부 주요 곡창지대인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Parana 남부 등에서는 50~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한 주간 기온은 평년수준보다 1~4°C 높은 수준을 보여 낮 최고기온이 20°C까지 오르내렸다. Sao Paulo 남부에서는 10mm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Mato Grosso 등 중부 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면화와 옥수수 생육에 좋은 조건이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